

妻家방화

1명 숨겨

【제천縣】11일 오전 8시
20분경 충북제천시교동 95
의13 金선녀씨(71·여)집에
金씨의 불째 사위 鄭남진
씨(29·강원도영월군북면공
기리)가 불을 질러 金씨
의 말사위 李별구씨(35·서
을중대동구면북 6동)가 불
에 타 숨졌다. 이날 불로
金씨의 아들 金일환씨(36)
조카 金범철씨(26)와 일환
씨의 부인 邊순임씨(39),
아들 기성표(3), 숨진 李
씨의 딸 소영양(3), 鄭씨
의 부인 金영희씨(26)등 일
가족 6명이 중화상을 입
어 원주기독병원에 옮겨져
치료를 받고있다.

94.
2,12